안전한 도로교통환경·도로 이용자 의식 향상 필요"

인천硏, 교통문화지수 향상방안 마련 연구 결과보고 및 발표
운전·보행행태·교통안전 3가지 영역…안전 제일 낮아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지역 교통문화지수 향상방안 마련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2008년부터 교통문화지수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추진하는 등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지표 및 순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인천시의 교통문화지수 순위는 2021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4위 수준(전년도와 동일)이며, 관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다양한 순위 및 등급을 보이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인적요인의 대표적 측정지표인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이후의 인천시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정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문화지수 향상방안을 제시했다.

교통문화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교통안전실태 및 교통사고발생정도)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교통문화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나 향후 조사항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예비항목은 "개선항목"으로 구분하여 따로 조사한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기준 및 유사한 특성의 지자체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산정되며, 점수는 절대값 기준이 아닌 상대적 비교를 통해 순위가 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21년 현재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평가지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교통문화지수 분석 결과, 교통안전 영역이 하위권에 위치해 가장 우선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영역 중, 교통안전실태 부문에서 점수가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교통안전실태는 다른 평가지표들과 달리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박인호 연구위원은 "교통문화지수는 도로 이용자 또는 공급·관리자 각자의 노력으로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공급·관리자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관심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및 관리, 도로 이용자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교통문화지수 자체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사 장소, 과정, 평가항목, 그리고 통합지수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eilbo.com

읍면 이장 간 화합·결속 다지는 돈독한 시간

강화군 이장단 체육대회, 나들길 걷기·환경정화 등

강화군 이장단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인천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 이장단(이장협의회장 김상배) 체육대회가 지난 23일 강화읍 공설운동장에서 관내 이장 187여 명을 비롯해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등 내빈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화군 이장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강화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들길 걷기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어서 각 읍·면 대표들의 노래자랑도 펼쳐져 이장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봉사에 솔선수범해 온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김상배 강화군 이장협의회장은 "오늘 행사가 이장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갑작스 못으며 참여하는 이장들을 보니 뭔소 모이기 힘들었던 여러 마을 이장들 간에 교류의 장이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천호 군수는 "강화 관내 곳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체육대회가 13개 읍·면 이장들이 단합하고 그동안 힘든 임상에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eilbo.com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옹진군 대청면 특수진압대 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사진: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옹진군 대청면 특수진압대 청사 착공

중부지방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17일 인천 옹진군 대청면에서 대형특수진압대 신축 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서특단은 2017년 4월 서해 5도를 최북단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경비·작전 전담으로 창단 되었으며, 대청특수진압대는 창단 이후 현재까지 자체 청사 없이 임시로 청사를 사용해 왔다.

신축 청사는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작전 대비 태세 향상과 현장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용부두 인근에 준공될 예정이다. 아날 진행된 착공식에서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및 시장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공사기간 중 안전한 시공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원제를 실시했다.

유동수 기자 yds@hyundaeilbo.com

인천시의회 식품진흥정책연구회 세미나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스마트팩토리 지원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만순)'는 최근 본회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만순·이봉락·박창호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식품안전시스템' 최은비 이사가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을 안내 하는 등 글로벌 식품산업 브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만순 의원은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의 식품산업을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욱 기자 pss@hyundaeilbo.com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식품진흥정책연구회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지역 맞춤 모자보건 정책 더욱 노력"

김정헌 중구청장, 임신부 태교동아리 모아모아 동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22일 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프로그램실에서 열린 중구 임신부 태교동아리 '모아모아'의 첫 만남 자리에 동참해 임신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아모아'는 인천 중구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공감·소통 등을 위한 육아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임신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 태교동아리다. 이번 1기 '모아모아'에는 16명의 임신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수시 모임 또는 매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태교 활동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중구 보건소는 동아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모임 장소와 다과는 물론, 동아리가 필요로 하는 일상 출산 관련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날 김정헌 구청장은 태교동아리의 첫 만남에 참여한 임신부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임신 8기 인천 중구는 구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실현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모자보건 정책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중구 보건소는 '모아모아'뿐 아니라 임신·육아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한 '육아 공감 활동', 안전한 출산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유동수 기자 yds@hyundaeilbo.com

시교육청,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 교직원 직무연수

유형별 이해·지원 강연 등

인천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교직원 중 희망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23일 실시했다.

"2023 인천에서 꽃피울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길" 직무연수는 국제결혼·외국인가정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다문화학생의 유형별 이해와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인천의 다문화학생수 추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학생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인권교육 전문 강사이자 '사장님 나빠요' 라는 유행어로 잘 알려진 개그맨 장철규가 "그림자도 차별하실 건가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연수에 참여한 교직원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학생 역시 인천의 소중한 학생"이라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욱 기자 pss@hyundaeilbo.com

서구, 음식점 주방 환풍기 교체 지원

업소당 최대 100만원

인천 서구가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 환풍기 교체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서구는 영업장 면적 100㎡ 이하 소규모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방 후드, 환풍기, 배기덕트 등을 교체하는데 업소당 최대 100만 원(지원금액 80%,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사업 신청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구 식품산업위생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평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구 식품산업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자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고 업소 위생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angh6240@naver.com